

# 하루만에 9천억...노트르담 복원 기부 행렬

### 佛명품기업들 수익유료 쾌척 일반 소액 모금운동도 활발 국 애플 CEO "힘 보태겠다"

우승 당시 스타들이 참석하는 자선경기가 열리고 이번 주말에는 스타들이 참석하는 콘서트가 프랑스 공영방송을 통해 중계될 예정으로 있는 등 각종 행사도 발표됐다. 외국에서도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를 통해 화재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회사 차원에서 복원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인디애나주 노트르담 대학교도 10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

다. 또 소액 기부 운동 역시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경영대학원 학생인 찰스 고스(23)는 온라인 모금 캠페인을 벌여 16일 오후까지 4만3000달러(약 5000만원) 이상을 모았다. /연합뉴스



점탑 잃은 '노트르담' 전날 발생한 대형화재로 16일(현지시간) 새벽 점탑이 사라진 모습의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장클로드 길레 파리시 소방청장은 화재 현장에서 "노트르담의 주요 구조물은 보존된 것으로 본다"며 (전면부의) 두 탑은 불길을 피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마크롱 "노트르담 대성당 5년 이내에 더 아름답게 재건할 것"

에마누엘 마크롱(41) 프랑스 대통령이 화재로 파손된 노트르담 대성당을 5년 이내에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 집무실에서 한 TV 연설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AFP 통신 등이 전했다.

그는 "우리는 대성당을 더 아름답게 재건할 것"이라며 "나는 5년 이내에 작업이 마무리될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나 "성급함의 빛에 갇히지는 말자"며 서두르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대성당의 화재가 분열된 프랑스에서 최상의 능력을 끌어냈다면 "어젯밤

파리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힘을 모으고 결속하는 능력이었다"고 돌아봤다. 프랑스 문화의 정수로 꼽히는 850여년 역사의 노트르담 대성당은 전날 저녁 발생한 화재로 96m높이의 첨탑과 목재 지붕이 붕괴하고 내부가 손상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 中 경제성장률 하락세 멈춰...1분기 6.4%로 전망치 웃돌아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추세가 일단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에 대응해 중국 정부가 작년보다 내놓은 대규모 부양책이 서서히 효과를 보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4%로 잠

정 집계됐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6.3%보다 0.1%포인트 높은 것으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이다. 중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작년 1분기 6.8%를 기록하고 나서 꾸준한 하락 곡선을 그려가고 있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6%로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유행 진압 사건의 여파로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진 1990년 3.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작년의 '6.5%가량'에서 '6.0~6.5%'로 낮춘 가운데 2조1500억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로 경기 둔

화에 대응하고 있다. 전혀 없는 대외 위기인 미중 무역전쟁이 드리운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인프라 투자와 감세라는 양대 카드를 앞세운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세계 주요 금융 기구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중국 정부로서는 6%대 성장률 사수를 뜻하는 '바오리우'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연합뉴스

## "최근 대기업 판결 고려...독립성 우려" 기술유출 혐의 대기업 한국 사업 철수

일본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한국 사법부 판단에 대한 '우려' 등을 거론하며 한국에서 문제가 된 자회사의 해당사업 철수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자회사는 한국 내 다른 업체의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가 지난해 경찰에 적발됐고, 이후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7일 도쿄에 본사가 있는 페로텍 홀딩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기업은 한국 자회사의 'CVD-SiC'(실리콘 카바이드 제조)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페로텍 홀딩스는 "지난 2월 페로텍 코리아와 전 종업원 3명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기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 검찰 당국으로부터 기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안정적 수익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업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생각이지만 작금의 한국에서 일본계 기업에 대한 사법부 판단 등을 감안하는 경우 한국 사법부 판단의 독립성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NHK는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이후 강제징용피해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한국 사법부 판결이 잇따라 "사법부 판단에 대한 우려가 (일본 기업의) 사업 지속에 영향을 주는 모양새가 됐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페로텍 홀딩스는 징용배상 판결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성의 여지를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자회사는 충남 당진에 있다. /연합뉴스

## 日 풀뿌리 정치 일손 부족...988명 무투표 당선

지난 16일 실시된 일본의 '후반부 통일지방선거' 중 기초자치단체 의회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확정된 인원이 9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375개 정촌(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총 4233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는 4775명이 출마했다. 그러나 선출돼야 할 인원의 23.3%에 해당하는 988명이 단독 입후보해 투표 전에 당선이 결정됐다. 이러한 비율은 총무성 자료가 남아있는 1951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이 중 8개 지역에선 후보자가 선거 선출 정률보다 적었다. 일본에선 저출산 고령화로 만성적인

일손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이런 현상이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함께 실시된 121개 정촌의 단체장 선거에선 45.5%에 해당하는 55개 지역에서 입후보자가 1명밖에 없어 무투표 당선이 결정됐다. 이들 선거의 투개표는 오는 21일 함께 실시된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광역 지자체인 도도부현과 정령시(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정부가 지정한 대도시)의 단체장 선거의 의원을 뽑는 전반부 통일지방선거가 실시됐다. /연합뉴스

## 세계 양대 양조업체 맥주통 특허 놓고 전쟁

인베브·하이네켄 법적 분쟁  
생맥주의 신선한 맛을 오래 유지해주는 기술을 둘러싸고 세계 양대 양조업체가 분쟁에 휘말렸다. 안호이저-부시 인베브(Anheuser-Busch InBev·AB인베브)와 하이네켄 NV가 기존 맥주통을 대체할 새로운 생맥주통의 핵심 부품을 누가 발명했는지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사는 이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새로운 맥주통 기술을 둘러싼 두 건의 특허침해 재판 가운데 첫 재판에 돌입했다. AB인베브는 이날 재판에서 새로운 맥주통 기술에 대한 특허권

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하이네켄의 카운터탑 생맥주 추출 장비인 '하이네켄 블레이드'와 '하이네켄 서브'의 미국 수입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하이네켄은 AB인베브의 생맥주 추출 장비 '노바'에 사용되는 장치를 자신들이 개발했다고 맞섰다. 양사가 법적 분쟁까지 오게 만든 새로운 맥주통은 기존의 맥주통이 가진 단점을 개선해 맥주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또 통 내부의 별개 봉지에 맥주를 담은 방식으로 기존 통보다 부피를 적게 차지한다는 장점을 내세워 맥주 판매점과 집에서 맥주를 즐기거나 하는 소비자층을 공략해왔다. /연합뉴스

# 회사 사정상 "급매" - 50%가격, 4월 30일까지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5백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3000만원~~  
급매 - 6500만원  
문의. 010-6834-7400